

'December-January'

SANPAYANG TIMES

라운아티의 러브하우스
우리학교가 달라졌어요

화채는 사랑을 싣고, CLP

Please Come Back HOME

-충격속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지구를 위한 약속, 350PPM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지구를 지키는 자그마한 손

가정방문

-우리 집에 왜 왔니?

아미들의 특별한 연말, 힐링캠프

나는 너희가 주말에 한 일을 알고 있다. Season 2

생각나눔

라운아띠의

러브하우스



산캠프 YMCA 자전거 주차장의 텅 빈 벽에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그림 이야기 주제는 Home of Peace로 하고!

라운아띠의 러브하우스

이 곳에 머무르는 사람들,
YMCA 가족들, 라운아띠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이 그림 속의 새가 평화의 씨앗을
물어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때요? 참 쉽죠?

그림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였던
샌디(태국나이 25세)는
이번 기회에 '그림 올림증'에서
좀 벗어났다는 소문이...

도대체 뭐가
쉽다는 건지..

ㅠㅠ

라온아띠의 러브하우스



YMCA 게스트하우스도!
아이들이 타고 노는 그네도!
새 단장을 했답니다☺



한땀한땀
정성을..



라운아띠의

러브하우스

먼지가 묻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있어
칙칙하기만 했던
이 벽이?!

나 곰팡이

라온아띠의

러브하우스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짜잔- 약 4일간의 러브하우스!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며 우리를,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의미를 떠올릴 수 있길 바라봅니다 ☺

우리학교가 달라졌어요

RaonAtti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우리학교가 달라졌어요

1 도서관 편

-도서관 옆 벽을 발견한
락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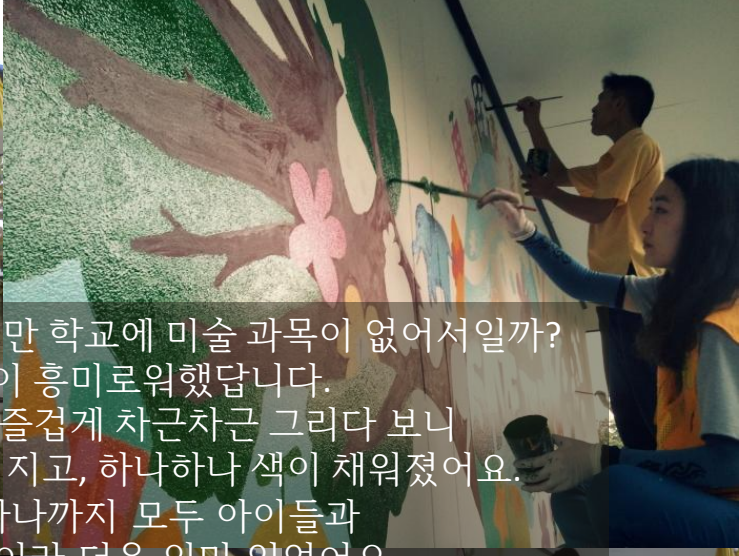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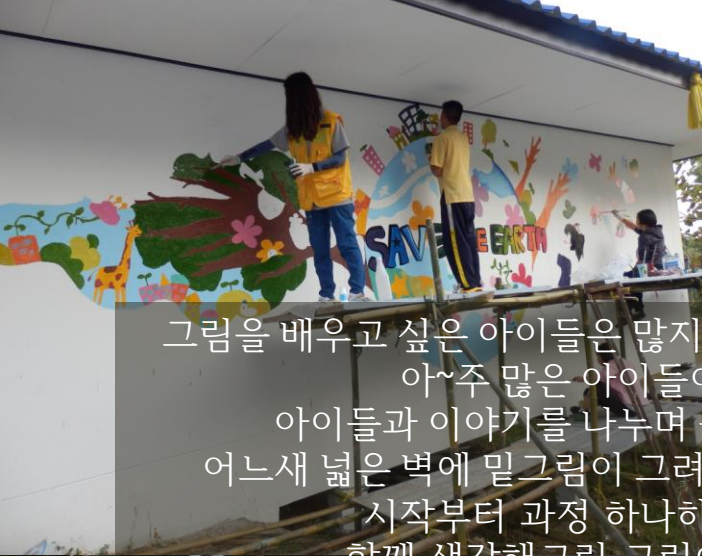
이렇게 좋은 도화지를
왜 그냥 뒀을까?

끄덕끄덕

락의 목표 중 하나!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락의 미술반 아이들과 함께
내용을 생각하고 일주일 간
도서관 옆 새하얀 벽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학교가 달라졌어요

1 도서관 편



그림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은 많지만 학교에 미술 과목이 없어서일까?
아~주 많은 아이들이 흥미로워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차근차근 그리다 보니
어느새 넓은 벽에 밑그림이 그려지고, 하나하나 색이 채워졌어요.
시작부터 과정 하나하나까지 모두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그린 그림이라 더욱 의미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상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함께 한 친구들에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선물한 것 같아 아이들도 행복해요 ☺



우리학교가 달라졌어요

2 회의실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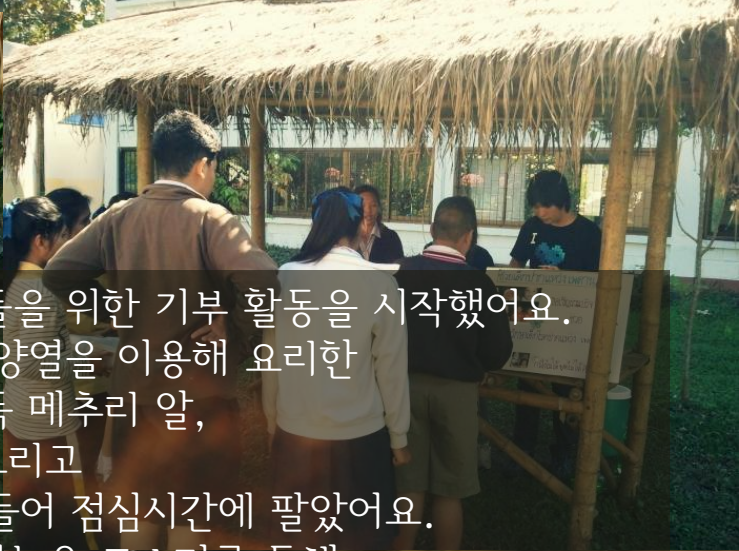
영어교실 겸 회의실을 '아시아' 스타일로 아름답게 꾸며달라는 교장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시작한 벽화! 그림 하나로 어두웠던 회의실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싣고
CLP



왜 그들은 메추리 알과 화채를 팔았을까?



지난 달에 생각했던 CLP아동들을 위한 기부 활동을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태양열을 이용해 요리한
햇살 가득 메추리 알,
그리고

시원 달콤 '화채'를 만들어 점심시간에 팔았어요.

학교 곳곳에 붙여놓은 포스터를 통해
아이들이 CLP에 대해 알게되었고, 이 활동이 아이들의 수술비에
보태어 진다고 설명하니 많은 아이들이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맛도 훌륭합니다 ^^)

덕분에 처음 목표로 세웠던 모금 액의 2배를 넘게 되었어요☺





사실, CLP아동들을 돕자는 취지를 확실히 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이를 어느 정도까지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조금 우려가 되요.

하지만 !!

관심을 가져주고

열심히 사먹어 준 학생들! 너무 고마워요.

재료와 장소를 지원해 주신 학교측에도 감사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싣고

‘CLP’



그 외에도 학생들이 직접 만든 베게커버나 깨끗한 헌 옷, 인형 등을 모아서 팔거나, 초상화를 그려주는 등의 다양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모든 베게커버를 사가신 교장선생님!
그 많던 베게커버를 전부 어디에 쓰셨을까?



충격속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지
라운아띠가
그들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총격속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아이 신나

이유는 바로 '방과후 수업' !!!

아이 재밌어

총격속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락의 '미술교실'


학교에 미술수업이 없어서, 그림에 목마른 학생들을 모아
방과후 미술 교실을 열었습니다.
계속 해오던 정규 미술수업과는 다르게 방과후 수업에서는
개인개인 지도해주며 기초 소묘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
그리고 함께 벽화를 그리며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를 하고 있지요.

여보씨혀~?

밥 먹혀씨?

샌디와 임의 '한국어 심화교실'

정규 수업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친구들 모여라!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조금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한국어 심화교실을 열어 일상회화와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50PPM
지구를
위한
약속



350ppm

산파양 학교의 모든 학생들과 3일 동안에 걸쳐 350ppm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이 학교의 Y green ambassador 아이들과 의견을 모으고 활동을 위한 배너를 만드는 등 모든 준비를 함께 했어요.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350ppm은...



첫째 날엔 350ppm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마을안에서 350ppm 캠페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시장으로, 한 팀은 마을로 흩어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저희는 시장으로 함께 갔어요.
상인 분들과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350ppm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 이 분들께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적어주셨어요.





또한 장바구니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학교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마을로 간 팀은 마을 곳곳에 있는 쓰레기들을 주우면서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캠페인 중에 만난 락의 할머니!
할머니는 장바구니가 좋다고 하셨어

35 PPM คืออะไร?

350 PPM คือค่ามาตรฐานโลก, ค่าที่เพิ่มขึ้นของหนึ่งล้าน (PPM) ในชั้นบรรยากาศ

พบในครัวเรือนเมื่อใช้เตาแก๊ส 2 ppm

การเพิ่มขึ้นของมลพิษ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10월에 산캠핑 워킹스트리트에서부터 12월 지금까지,
우리들의 약속이 키운 나무입니다 ☺

키운 보람이 있군



지구를 지키는 자그마한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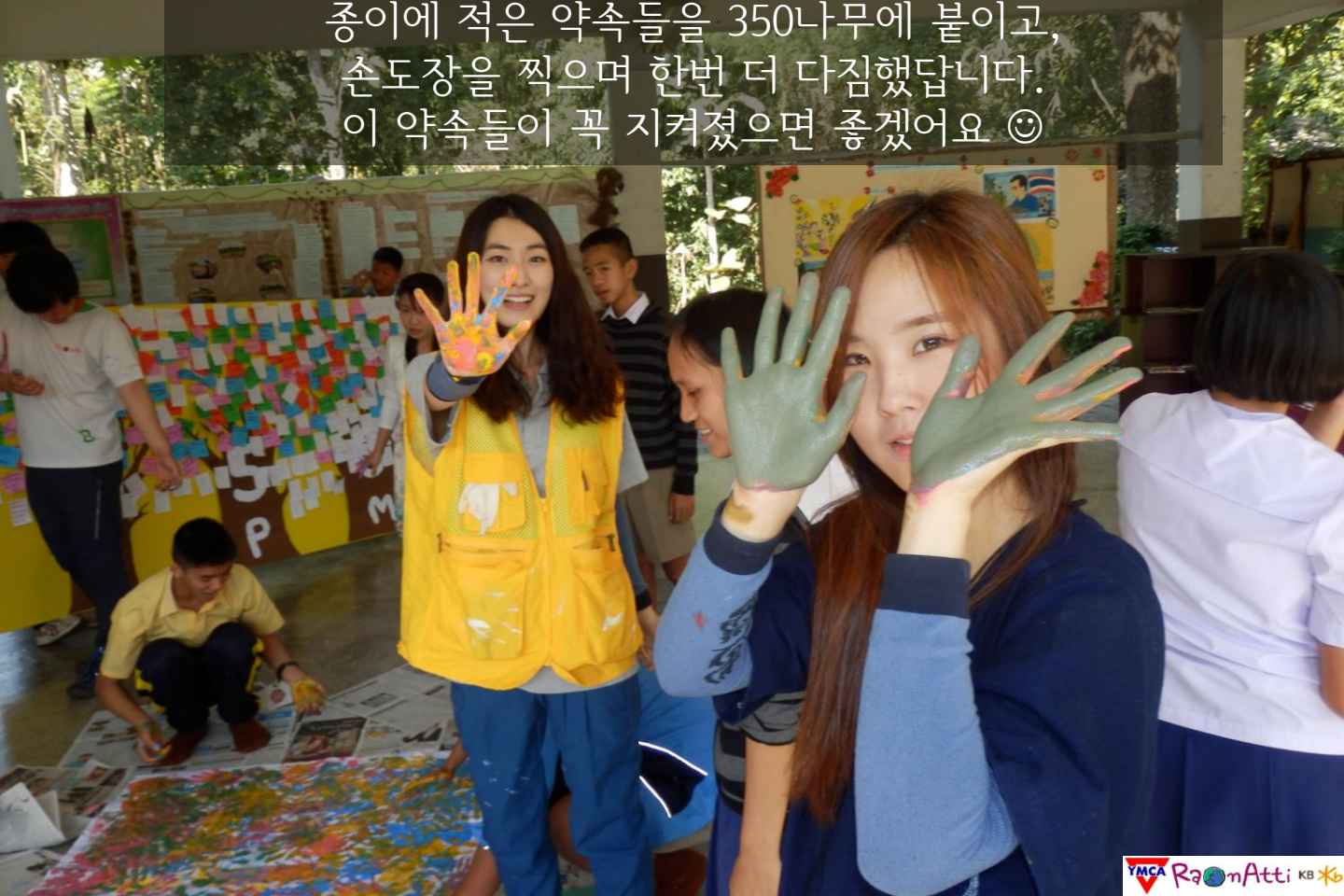
둘째 날엔,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점심시간엔 1,2,3학년 아이들과 함께,
클럽시간엔 4,5,6학년 학생들과 함께!
다시 한번 350ppm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신이 지구를 위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적어보았어요.



지구를 지키는 자그마한 손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배너에 약속도장 찍기!
종이에 적은 약속들을 350나무에 붙이고,
손도장을 찍으며 한번 더 다짐했습니다.
이 약속들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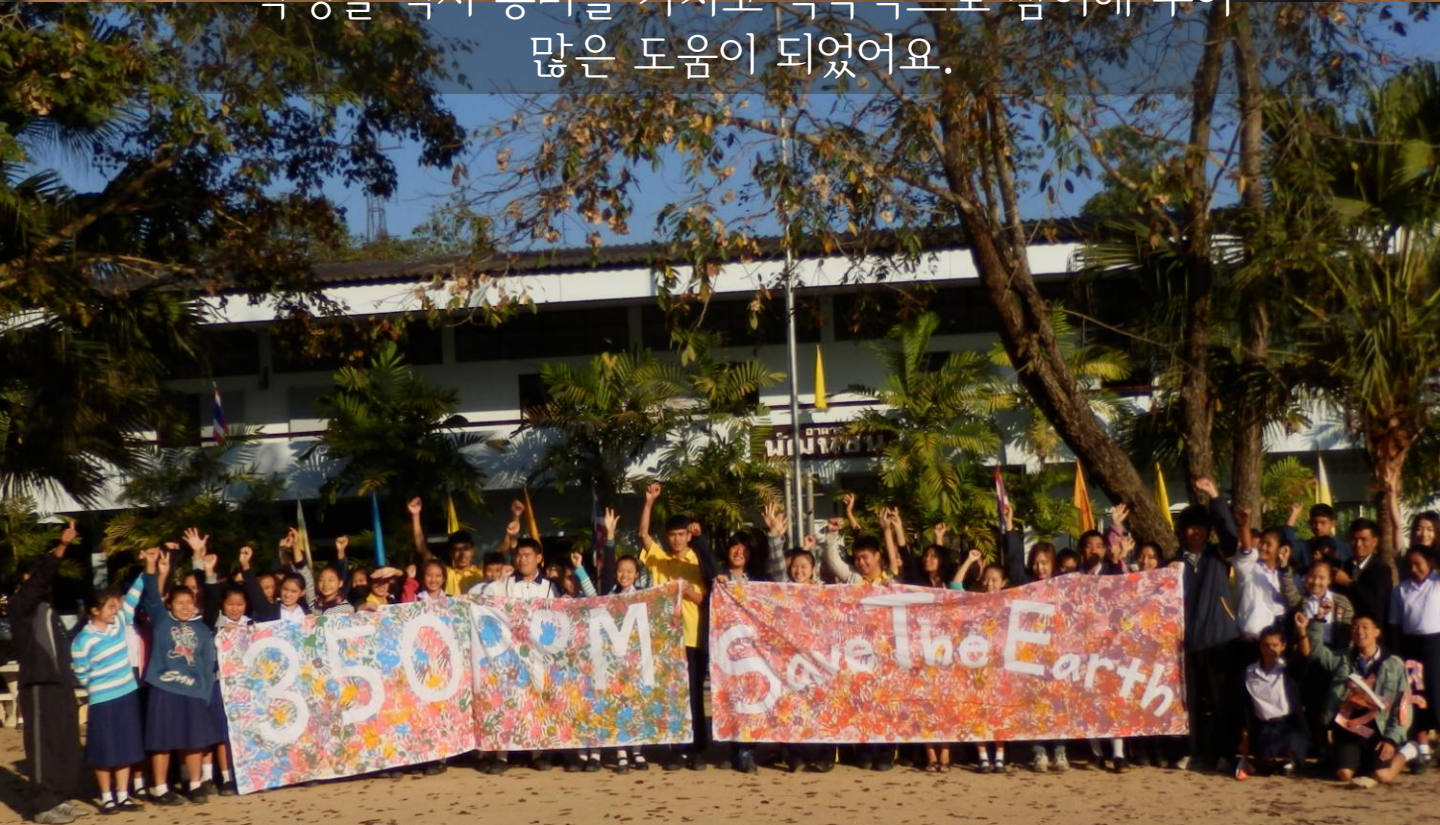


셋째 날엔, 손도장을 찍은 배너의 글자를
아이들과 함께 떼며
늘 보면서 잊지 않도록 학교 앞에 전시해두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구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는 점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학생들 역시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의 이러한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일회성에 불과한 활동이 되어버린다는 점이 못내 아쉬웠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취지를 깨닫고 지속적으로 이어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가정방문
우리집에
왜왔니?





산파양 학교에선 일년에 한번, 모든 학생들의 집을 방문해요.
저희는 학교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의 집에 가정방문을 다녀왔어요.





첫째 주에 샌디와 락은 각자 빠빠의 다른 지역으로,
임은 부역잔으로 가정방문을 갔어요.
험난한 길과 먼 거리에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집에 찾아가
부모님들을 만나 보면서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불편함은 없는지 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더 학교에 대해,
아이들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둘째 주에 방문한 마을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반이약이었어요.
 첫째 주에 간 마을들에 비해 멀지는 않았지만 이곳 역시
 가파른 산과 험난한 길을 거쳐야 갈 수 있었어요. 마을에
 14명의 학생들이 살고 있어서 한집 한집 시간을 많이 들여
 방문을 하지는 못했지만, 선생님들과 얘기도 많이 하고 마을에
 사는 학교 학생들과 밥도 함께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아띠
선생님들은
학교 끝나고
뭐해?



시장에서 엄마도와 문어꼬지팔다가 남남먹고~



선생님들께 태국요리 배워서 남남먹고~



태국 전통과자 만들다가 또 남남먹고~

노래부르다 배고파서 간식 남남먹고~



운동하가 배고파서 남남먹고~ 그러다가 모두 살이 쪼들지요...

아띠의 특별한 연말
힐링캠프



엄마 Need Take a Rest.
We Need Take a Rest
- P pare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 인타논



불고기와 함께한
2012년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 곳에서 만난 태국 친구들과 함께 한 트래킹!



놀라운 풍경과 상쾌한 공기에
몸도 마음도 편히 쉴 수 있었던 ...





인타논에서의 힐링캠프!





그리고...

옥수수 하나 10бат~

튀김 한 접시 40бат~

산 속에 있는 시장에서 로얄프로젝트 상품을 파는 시장이 있어서,
하루 동안 우리도 태국의 자급자족을 위해 봉사를 했습니다.

Royal Project란?


태국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제자립계획의 일환으로
식품, 농작물, 특용식물 등 넓은 범위에서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젝트.

좀 팔리고 있나?

모든 채소가 20бат~

나는 너희가
주말에 한 일을
알고있다
season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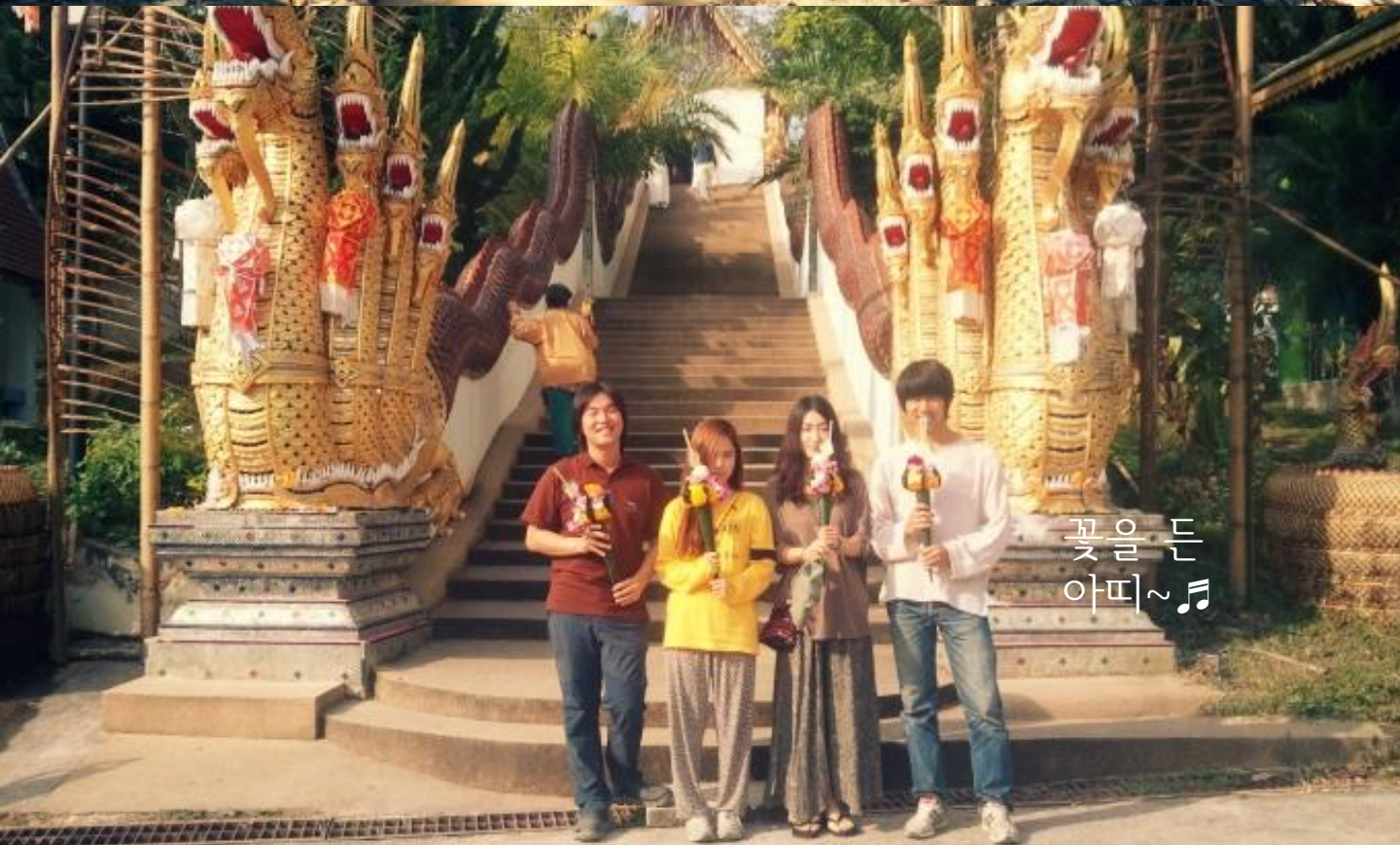


먹는건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샌디씨는
어차피
나 안 좋아할 거니까...



썰태우가 무서워요



꽃을 든
아미~♪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

마을 숲에 놀러 갔다가 만난 코끼리 아줌씨

까악

★ 용기의 손

애들은
뭐지

까악

샤워하는 코끼리아저씨 옆에서
우리도 물놀이 한 판!



생각나눔 어느덧, 4개월

반 빼와 아라이?
름 레우
(집이 뭐지? 잊어먹음)

마이미 킷
(생각없음)

양 마이 킷통 반...
(아직 집이 그리지않아)

찬꺼 두아이
(나도나도)

마을에 들어가기 전, 각자 목표를 세웠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샌디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아이들과 함께 캠페인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잘 몰랐던 Y 그린 앰바사더 아이들과 친해진 것 같고 체육대회를 통해서 아이들과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요.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이 밖에 있으면 나가서 말을 걸고 얘기를 하면서 가까워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어 가르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사진을 찍을 계획이에요.

락(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방과후 미술수업)

라온아띠와 아이들이 함께 힘을 합친 덕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벽화를 주로 하고 있지만, 남은 기동 페인트칠, 꽃나무 심기, 교내 쓰레기 줍기 같은 활동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좋아해서 저도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또 학교에 미술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신청자를 받아 방과후 미술 수업을 하며 아이들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있어요. 재능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제가 떠나고 나면 이 학교에 미술수업이 없어지게 되어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후에도 계속 좋아하는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자이(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아직 아이들과 친해지지 못한 것 같아서 아이들과 잘 친해지는 샌디를 보고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쉽게 말을 걸거나 마음을 여는 것들이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서 쉽지는 않지만, 노력해 보려고 해요.

임(기숙사 아이들과 친해지기, 선생님들께 배우기, 일상에서 실천하기)

기숙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부족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언어나 문화를 알아가고 있어요. 특히 기숙사 아이들의 가정방문을 통해서 더 자세한 것들을 알 수 있었죠. 선생님들께도 모르는 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며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내가 일상에서 실천하고 싶었던 텀블러 이용하거나 에코백 사용하기는 실천하지 못했지만 텀블러 대신에 학교의 유리컵을 이용하고 있고 에코백 사용하기 대신 비닐봉지 안 받기를 하고 있어요. 그 덕에 나와 함께 장을 보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내가 자주 애용하는 곳의 상인 분들은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셨고 조금씩 변하는 모습에 희망이 생겼어요. 남은 시간 동안도 꾸준히 실천해야겠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번 달 활동?

샌디: 방과 후 수업

원래 들어갔던 수업은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이 함께 있어서 다소 산만하고 나 또한 열정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방과 후 수업에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와서 뭔가를 더 가르치고 싶고 수업시간이 기다려져요.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락: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아무래도 아이들과 함께 한 벽화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오래도록 남을 벽화이기에 어떤 것을 담을지 신중하게 고민했고, 방과후 미술수업 학생들과 머리를 모아 일주일 간 구상을 했지요. 이렇게 시작부터 스케치, 채색 등 모든 과정을 함께 공유하며 진행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활동이었어요.

남짜이: CLP를 위한 기부활동

우리가 기부를 위해 판매한 모든 것 들이 다 잘 팔렸는데 그게 바로 아이들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관심이 크기라고 생각해요. 그 덕분에 목표금액이 상향 조정됐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 아이들이 이런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게 꼭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임: 가정방문

기숙사에서 나와 가깝게 지내는 아이의 가정을 방문하는 시간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아이, 아이의 부족이나 마을, 가족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나를 반성하기도 했고 배울 점을 찾기도 했지요. 이모저모로 더 많이 공감하고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SAN DEE

라온아띠에 지원하고 합격해 국내훈련을 받은 지가
정말 엇그제 같은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진짜 식상한 멘트인 것은 알지만
태국에서의 시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이것 말고 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내가 라온아띠가 되고 난 후
국내훈련부터 지금 태국에서의 삶까지
정말 수많은 만남이 있어왔다.
지금까지는 만남의 연속이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껴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별을 준비해야만 한다.
달콤했던 생활을 정리하고
행복했던 시간을 정리하고
잊지 못할 인연을 정리해야 한다.
정말 힘든 한 달이 될 것 같지만
이 또한 받아들이고 잘 이겨내겠지?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RAK

출국 전, 자신에게 쓰는 편지를 쓰며
5개월 후의 나를 상상했던 때를 시작으로,
많은 것들이 머리 속을 스치네요.
아직까지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지만
내가 느낀 것, 생각한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나가며
스스로 얻은 새로운 발견들을 해 나가는 요즘입니다.
돌아가서 내가 해야 할 것,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많기에
너무나 좋은 이곳을 떠나기 싫으면서도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참 기대가 되요.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삶을 살아갈지 고민함과 동시에
한 번 뿐인 2013년의 1월을
한-껏 즐기고 있습니다.

NAMJAI

지금의 나는 과연 과거의 나에게
이곳에 오기 전 보다 성장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아득해 보이던 5개월이 어느새 거의 다 지나갔다.

그 동안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며,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정리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정리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왠지 군대에서 전역할 때 들었던 느낌이

다시 들기 시작한다.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찾아왔다.

남은 한 달, 잘 정리해서

후회 없이 돌아가야지-

YIM

1월, 절대 오지 않은 것 같던 시간이네요.
아직 배우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지난 4개월은 저에게 고민의 시간이었어요.
나를 생각하게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때론 내 미래를 고민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채찍질 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남은 한 달도,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 고민을 이어갈 거예요.
일단, 지금은 태국에 조금 더 집중할 때!
남은 한 달, 이 곳에 푹- 빠져 살 거예요!





한 달 뒤에 한국에서 만나요, 안녕!

